

주 일 예 배

2019년 12월 8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50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휘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신 8:1-10(Deuteronomy)	이규본목사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Reasons for walking in the road of wilderness”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399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2월 헌금송:** 12/8: 바나바 선교회, 12/15: 에스더 선교회
- 신학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윤석진교수(Greg Yoon/ 아시아 3대 테너) 초청
1)일시: 12/8(주일) 오후 6시. 2)장소: 뉴욕장로교회(43-23 37Ave. L.I.C., NY 11101)
초청장을 많이 전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RTS를 위한 헌금 위원: 박휘영, 한우연, 장수자, 김남규, 전행복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와 셀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 합니다.

금주의 말씀

(12. 8. 2019)

본문: 신명기 8:1-10

제목: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삼 8:2)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 하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아무것도 없고 위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은 대로 하지만 하면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길도 없는 광야 길로 몰아넣어 무지무지한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아주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2. 감추어진 기적을 체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을 40년 동안 입었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뜨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서 먹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즉 40년 동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번만 기적을 베풀 것이 아니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줄은 대로가 있다. 그 길은 바로 지중해 해변으로 따라 난 길 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길도 없는 광야로 몰아 넣으셔서 무지무지 하게 고생을 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길로 집어 넣으셔서 실컷 고생을 시키셨다. 즉 광야 학교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기 위해 서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님을 알고 있다. 가나안 땅에는 군대와 무기를 가진 강한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를 가졌건 안 가졌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복이 오게 하기도 하고 부흥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죽도록 고생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하여 돈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의식주를 맡기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결국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 하나는 웃 한 벌을 40년 동안 입었다. 또 하나는 신발도 닳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1208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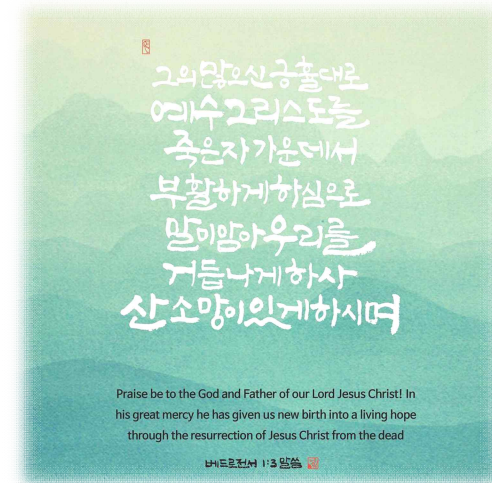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 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 현종영
-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 *장로 : 안석원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김명애 *반주 : 서난숙
- *찬양대 :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